

倫落行爲等 防止法 改正法律

믿음 희망 사랑의 공동체
다비타의 집

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 430-4

전화 : (0351)61-0955

FAX : (0351)62-8766

483-060

I. 개 요

1. 법 제정사유

동법은 여성계의 끊임없는 건의와 사회정화 차원에서 1961년 11월에 제정

2. 제도의 변천

- 공창제도 실시(일제치하)
 - 1904. 10 일본 공사관 산하 '경성영사관령' 제3호
 - 1916. 3 경무총감부령 제3호 예기작부치옥영업취체규격 제4호 대좌부창기취체규칙
- 『부녀자의 매매 또는 그 매매계약의 금지』공포(1946. 5. 17 법령 제70호)
- 공창제도 등 폐지령(1947. 11. 14 법률 제7호)
- 윤락행위등 방지법 제정(1961. 11. 9)
- 특정지역 설치(1962. 4)
 - 내무부, 보건사회부, 법무부 공동으로 특정지역(용산역, 영등포역, 서울역 등 46개 집결지역 및 용산 이태원, 대구 입석동, 봉덕동 등 32개 기지촌)을 설치·운영
- 윤락여성선도대책위원회 구성(1969. 11)
- 특정지역 폐지(1972) : 내무부에서 지역사회정화 차원에서 폐지
- 기지촌 정비 실시(1977-1983)

3. 윤락행위 행태의 변화

- 법 제정이후 국민의식 및 사회환경 변화로 퇴폐향락 문화의 만연, 제조업부문 근로여성의 3차 산업으로 유입 등 구조적 요인의 변화
- 형태면에서는 미군기지촌이나 특정지역에서 집단을 이루는 전통형매춘이 퇴조되고 퇴폐향락업소를 중심으로 한 산업형매춘 또는 겸업매춘이 70년대 이후부터 크게 늘면서 문제의 양상이 변화
- 동법은 양적이나 형태면에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거의 사문화되어 있는 동안 윤락행위는 특정지역에서 소집단으로 소집단에서 개인단위 활동으로 변화하면서 주점형태를 띤 전 서비스업종으로 확산 되는 현상을 형성